

# 인구절벽, 학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김한별  
(한국고원대학교 교육학과)

## 발제요약

본 발제문은 학령기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의 마중물이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소개한 후, 학교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민할 때 고려할 세 가지 사항 -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서 학교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습자의 경험과 삶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상하려 교육에 대한 시각 전환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학교 급연계를 통한 지역내 학교기능의 재배치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였다.

## I. 시작하는 말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어떻게 학교가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이 자리는 학교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이 말 그대로 학교교육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어떻게 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발표자는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믿음들을 조금 흔들 어볼 생각이다. 그러다보면 이 발표에서 언급하는 제안들이 지금 당장의 조건에서 는 실현되기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론적 으로는 의미가 있더라도, 현실적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생각을 개선하는 까닭은 토론 회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논의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은 이상적일 수 있는 생각들을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방법 을 모색하거나, 현실의 제약으로 인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바를 생각할 수 있으며, 혹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를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I. 왜 문제인가?

인구절벽시대... 오늘 토론회 제목의 첫 단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가피한 학 교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 구간을 묘사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구절벽이란 말이 ‘벼랑 끝’이라는 의미로 다가서는 까닭은 인 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연령 구간이 경제적 생산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15-64세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침체 현상을 가속 하고 국가의 잠재 성장률의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과 관련하여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변 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저출산, 고령화’ 현상 역시도 사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성장 동력이 떨어짐에 따른 결과이다.

경제적 생산 활동 참여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구체적으로 가계 및 국가의 경제적 침체로 이어진다. 개인의 의사결정 수준에서 보면, 생산을 통한 소득의 증가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일상의 소비욕구의 저하도 문제이지만,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 차이와 상관없이 보편적 인간발달의 과업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쉽게 말해서 점점 감소하는 노동활동 참여가능 인구에 의존해서 사회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기반을 지탱해야 하는 것도 버거운데, 사회적으로 필 요한 재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계층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챙길 경제적, 심리적 여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한 소득수 준의 불안정성 역시 ‘결혼도 사치’라는 자조섞인 표현처럼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을 거부하는 풍조를 심화한다.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심화됨으로 써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상 황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면을 전환하지 못한 채, 오히 려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고 있다.

교육의 맥락에서 전체 인구구조에 있어서 절벽이 있다는 사실은 전통적 의미에 서 학교교육의 수요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해짐을 뜻하는 것이다. 결혼, 출산, 양육을 부담스러워 하 니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최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절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4월에 발간된 한 주간지 기획 기사를 보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1995년 1,172만여명이었던 수준에서 2015년 875만여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300만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려 25%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328만여명이던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6년엔 277만명으로 줄었다. 불과 6년 만에 16%가 감소했다(‘학령인구 절벽에 선 교실’, 주간조선 4. 12).

이러한 현상은 충청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충북의 경우에는 학령인구 감소 효과와 더불어 도시지역 이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수가 급감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발표된 충청지방통계청의 ‘지난 10년간 통계로 본 충북지역 교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북의 학생 수는 20만4천208명으로 2006년에 비해 5만3천305명(20.7%)이 감소했다.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2천682명(16.5%), 499명(0.9%)이 늘었으나 초등학교생이 3만8천934명(31.7%)이나 급감했다. 중학생도 1만7천552명(27.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생 수가 줄어든 것은 결국 향후 중학생, 고등학생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 참여 수요의 감소추세는 그 현상 자체가 갖는 사회적 영향만큼 적극적이고 세심한 교육정책 차원의 대응이 부각된다. 학생이 오지 않는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정책은 학령기 인구 수 감소에 대한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책이다.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배움의 공간을 이용하려는 학생 수요가 줄어드니 그에 따라서 공간의 공급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방법적 측면에서 개별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학교시설의 정리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없애는 것은 의미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의 중요한 배움의 터전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집단 기억의 공유의 장이자, 교류의 공간이다. 학교는 지역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주민들에게 있어서 지역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공동 정체성의 근간이다. 학교를 제외하면 문화, 교육시설이 충분치 않은 농촌지역에서 학교를 없애는 것은 지역에 아동, 청소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유를 인위적으로 지워내는 것으로서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잠재적 기반을 훼손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여 ‘학교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는 학교라는 공간의 양적, 질적 조정 작업은 좋던 싫던 간에 불가피한 고민이자,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를 통폐합하는 정책의 시행은 그 과정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학교를 다닐 학생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공간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항력일 수 있지만, 언젠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 수가 증가되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싹까지 도려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우리의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차버리고 우리 사회가 봉착한 인구절벽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마치 불황기에 유휴 생산라인을 감축한 결과,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충분한 공급을 할 여력이 없음으로써 회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모습처럼,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단순 경제적 처방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의 성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접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학교의 양적, 질적 조정은 학교교육이 우리 사회의 계속적인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체질을 기르고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원칙을 일정한 지역성을 전제로 하는 학교라는 조건을 살려서 좀 더 구체화한다면, 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학교의 양적, 질적 조정이 각 개별 학교가 가진 기존의 교육역량을 발전적으로 융합함으로써 학생의 성장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돌보며, 지역과 전체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배움터를 만드는데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전면에 내놓을 수 있는 검토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 III.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교육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가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충분히 반응적(reactive)으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proactive)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삶에 대한 가치, 태도, 역량이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세대의 변화는 곧 이들의 상호교류하며 영위하는 사회적 삶의 모습, 곧 사회의 변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의 양적, 질적 조정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방법 차원의 고민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새롭게 드러나는 학교의 가능성 주목

무엇보다도 먼저 각 학교가 가지게 되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학교가 처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의 위기적 측면만 주목하는 관점에서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기회의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따라서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논리는 학교교육에 새롭게 유입되는 학령기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모습이 문제가 없는 모습이라고 바라보던 잣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는 잣대를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개별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경험의 질적 수준에 주목한다면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기 학생 수의 감소는 오히려 교육의 수준을 심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써 과거 콩나물 교실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비유를 얻었던 교실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고유한 개성과 삶의 조건을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참여를 활발하게 이끌 수 있는 토론식 수업, 실험, 실습활동이 보다 더 용이해짐으로써 교사의 가르침 중심에서 학습자의 배움 중심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결국 학생중심의 수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교사에게는 수업, 상담 등과 같은 학생을 상대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흐름을 살피서 교사의 역할을 재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지도할 학생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수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교재연구나 수업활동계획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사로서 자기개발과 전문성의 신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연수활동이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 개인의 개성과 상황에 주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였으며, 교사에게 열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을 교육기회의 안정적 유지,

확대에 치중하던 관점에서 교육기회의 고도화, 혹은 전문화에 주목하는 시점으로 선회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을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급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인적 역량을 어떻게 유지, 그리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학생 수가 줄어들어 빈 교실이 생기고, 교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효율화하자.’가 아니라, ‘늘어가는 빈 교실과 학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며,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 교사에게는 어떤 역량과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 2. 학교-지역사회의 협력

학교의 양적, 질적 조정 작업에서 고려할 두 번째 사항은 지역사회로 대변되는 학교 외부 주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학교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교육의 위기는 분명 학교의 문제이기 는 하지만,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특히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농촌 지역의 경우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상 학령기 아이들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지역을 떠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형국이 된다. 말하자면, 학교가 사라짐으로써 아이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며, 지역도 지역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후속 세대를 스스로 길러낼 수 있는 자생력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촌지역에서 - 도시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 학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지역인을 길러내는, ‘마을의 성장점’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성장점이 잘려나간 나무의 운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교 자체가 없어진 지역은 결국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급기야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려, 사실상 소멸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은 어느 한쪽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한쪽의 존속도 영향을 받는 공생적 관계이다. 지역은 학교의 존속을 지원하는 커다란 우군이다. 사실 농촌지역에서 학교를 없애려고 할 때 예외없이 저항하는 집단이 바로 지역사회이다.

학교와 지역의 협력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사회학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등 평생교육 맥락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은 이미 강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봉착하여 다시금 학교와 지역의 협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학교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부터 가능한 교육적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학교가 교육을 위하여 구성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학

교만의 역량만으로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적 경험을 접하도록 돕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기관, 단체와 연계하는 움직임이 좋은 예이다.

인구절벽에 직면하여 주로 언급되는 학교의 통폐합이라는 정책적 처방이 양적 조정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롭게 가꿀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발굴, 연계하려는 협력시도는 교육과정의 내실을 다지고 고도화하는 질적 조정이다. 학교의 질적 조정을 통하여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는 시도는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대안적 교육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만 한마디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를 교사, 학생, 학부모(지역)의 인간적 교류와 상호이해의 기회로 활용하여 교육의 모든 주체의 소외되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실천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 역시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의 진보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진 깨어있는 지역민을 길러냄으로써 학생이 떠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3. 학생의 삶과 경험을 전경(前景)에 두기

인구절벽의 추세 속에서 학교의 양적, 질적 조정에 대한 고민과 관련한 세 번째 사항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교육을 실행하는 입장이 아닌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과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앞서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학교의 역량과 자원만으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시설과 견주어봐도 교육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교의 역량과 자원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학생의 전체 삶 맥락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일부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자로서 학생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주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물음에 주목하기에 앞서서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접하는가?라는 배움을 중심에 두고 학교 교육과정의 개편 및 구체적인 교육활동의 개선을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곧 학생들의 좋은 학습경험으로 언제나 이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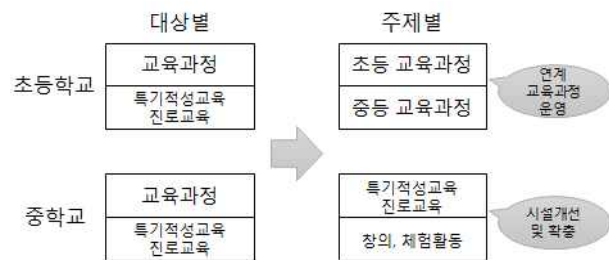
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배움의 경험은 각자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조건과 결부되어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경험을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학생의 삶과 경험을 간과하지 않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채로운 가르침과 배움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삶 자체에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경험은 학교라는 공간과 학교를 다니는 시간에 한정되어 발견되는 것만은 아니다. 학교교육 역시 학생 삶의 전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특정한 시기와 공간에서 벌어지는 교육과 학습의 한 유형일 뿐이며, 이러한 학교교육을 통한 경험 자체가 개인이 참여한 교육과 학습의 의미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학교교육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한 개인의 전체 삶이라는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교육 및 학습행위와 관련지으면서 고민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학령기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인간적인 교류가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삶과 관심을 배려하고 그에 주목한 교육실천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해내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학교 살리기와 같은 학교혁신의 움직임들이다. 학생의 삶과 경험을 주목하는 입장은 작은 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역의 여건상 학교들을 통합하여 학교 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교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 개개인의 삶과 관심사를 고려한 수업활동의 추진은 학교의 실제 운영 중에 충분히 시도 가능하다. 학생 수의 감소는 분명 학생 개개인이 고유한 개성에 주목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교육을 질적으로 심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배움이 학생의 삶의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녹아들어가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IV. 학교 급 연계를 통한 학교기능의 재배치

학령기 인구 수 감소에 따라서 늘어가는 각급 학교의 빈 교실 문제에 대한 정책적, 교육적 대응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한 지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영을 연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급간 연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서로 다른 학교 급이 하나의 학교 울타리 안에 물리적으로 공존하는 병설학교 체제를 강조하

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구분이 교육대상의 차이, 즉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학교 급을 구분하여 교육을 하는 체제였다고 한다면, 학교 급간 연계는 대상의 차이가 아닌 학생들이 배우고 경험해야 할 교육주제의 특징에 따라서 배우의 공간을 구별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학교 급간 연계는 병설학교 체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물리적 밀접함에 치중하기보다, 유아, 초, 중, 고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과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주안점을 둔다. 그럼으로써 학생 수가 줄면서 남는 학교공간을 체험과 활동중심 특기교육, 진로교육,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 융합교육이 가능한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대상에 따라서 학교를 분리해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사용하던 것을 교육의 대상은 통합하되, 교육주제에 따라서 학교 시설을 특화해서 운영하자는 것이 학교급 연계를 통해서 학교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기본 취지이다. 사실 6-3-3이나 5-3-4 등과 같이 세계 각국이 서로 구별되는 학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 기준을 넘어서는 연계와 통합 시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1] 학교 급 연계를 통한 학교기능의 재배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 급 연계의 핵심 취지는 교육대상이 아닌, 교육주제에 따라서 학교공간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그에 맞게 학교시설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초등학교와 하나의 중학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중학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 운영은 기본적으로

는 지금처럼 학년별로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이루어지되, 서로 다른 학교 급 학생들의 교류기회(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상호교류)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교류 가능성을 살려서 학생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초, 중등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서로 다른 발달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한편, 특기적성교육,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공간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나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돕는데 필요한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한다. 여기서는 활동 주제에 대한 관심수준과 재능수준에 따라서 학년 구분을 넘어선 무학년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설과 기자재를 정비하고 공간 배치도 재구성하는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교육요구를 충족하는 학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자원을 학령기 학생들을 위하여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학교 급간 연계시도는 ‘통합’이라는 기조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 통폐합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로 학교의 통폐합이 같은 학교 급(예: 초등학교-초등학교) 간에서 이루어지는 시도라고 한다면 학교 급간 연계는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는 시도이다. 학교 통폐합은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게 물리적 교육공간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는 접근이라고 한다면, 학교 급간 연계는 학교가 기존에 갖추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규모를 줄이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적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입장이다. 기존 학교 급의 구분을 넘어서는 작업이란 점에서 학교 급간 연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학제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교사 1인당 감당해야 할 학생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구조적인 한계를 외면한 채 이상적인 비전을 강조하기란 쉽지 않다. 작은 규모의 학교가 교육의 논리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학교의 취지를 전면으로 내세우기에는 경제적, 제도적, 물리적 제약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급간 연계는 학생 수가 줄면서 각 학교 급 단위로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학교급간 연계 시도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봉착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이상과 현실의 절충적 해결안인 셈이다. 즉, 학교 급간 연계를 시도하는 이유는, 학령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기존

의 학교 시설을 불가피하게 통합할 수밖에 없다면, 교육 대상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서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 기대하기 어려웠던 교육활동의 실행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학생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기왕에 학교들을 묶어야 한다면, 통상적인 동일 학교급간 통합이 아닌 서로 다른 학교 급의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V. 마치며 : 학교중심의 교육담론 벗어나기

지금까지 인구절벽의 시대에 우리의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대원칙들을 언급하였다. 변화하는 교육현실의 여건에서 학교교육이 방향을 잃기보다,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하며, 그럼으로써 학교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리는 중요한 발판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이외에도 학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각 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특히 주목해야 할 원칙과 사안들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변화를 안내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 하나만 이야기하고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학교의 개혁노력을 통해서 학교가 학교답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제도와 정책 차원의 개선이 분명 필요하지만,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익숙한 학교중심의 교육에 대한 담론을 넘어서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만 수렴, 집중하는 것은 학교 밖에 존재하는 학습 환경을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도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 개인의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교 밖의 생활 속에서 접하는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내용은 모두 중요하다. 학교의 정규 교과목에서 다루는 지식과 기능과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예절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교 밖의 맥락에서 접하는 자신들의 일상 속 학습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담으로서 학교 밖의 상황에서 맴도는 소위 ‘부차적이고 비전문적인’ 내용이 진정으로 교육적으로 가치롭고 필요하다면, 학교로 끌고 들어와서 다루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학교밖에 존재하는 학습기회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어렵게 하며, 학교도 스스로의 조건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학교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늘어가는 교육적 요구를 학교가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 기대는 결국 교육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학교가 세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되는 양상으로 귀결된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과 같은 정책이 고스란히 교사에게 부담으로 지워지면서 학교는 힘겨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근무하는 학교 급이나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교사들이 토로하는 과중한 업무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수업결손 등과 같은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지도가능성의 제약은 교육에 관한 한 학교만이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는 것이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학교교육을 변화하려는 수많은 제안들은 분명 학생 수 감소, 늘어가는 빈 교실, 교육적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학교중심의 담론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학교의 변화는 학교교육을 살리려는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학교와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주간조선 2017. 4. 12

충청지방통계청(2016). 2016년 통계로 보는 실버세대.

충청지방통계청(2017). 지난 10년간 통계로 본 충북지역 교육.